

# 광주전자공고, '자동차 조립 로봇용접교육센터' 개소

###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일환

### 풍부한 기자재·우수한 교육환경 인프라 갖춰

### 약 6개월 동안 3억 7000만 원 설립 투입

광주전자공고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자동차 조립 로봇용접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전자공고는 평소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풍부한 기자재 및 우수한 교육환경 인프라를 갖춘 '자동차 생산 조립 및 정비 분야'에 집중해 왔다.

광주전자공고는 지난 3월20일 공모를 통해 자동차 분야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약 6개월 동안 3억7,000만 원이 자동차조립 로봇용접교육센터 설립에 투입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자공고는 교육과정 편성, 시설 및 기자재 환경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전국 특성화고 최초로 자동차분야에 있어 로봇용접교육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광주전자공고 자동차과 학생 15명, 금파공고 학생 2명, 송의과학기술고 학생 2명 등 총 19명의 학생들이 교육생으로 선발돼 로봇용접 교육센터에서 교육받게 된다.

광주전자공고는 오는 2021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광주·전남지역 특성화고 거점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현장 직업교육을 접목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인재 육성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 '광주시조례 제5300호(제정 2019년 10월15

일)'에 의거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이 5대 5의 예산 지원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

광주전자공고 자동차과 이동승 부장교사는 "타 시·도 어느 학교에도 없는 자동차 조립·정비 로봇용접 기자재 및 실험실습 티칭 로봇을 새롭게 구축했고, 최첨단 교육과정 운영 및 실험실습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악조건에서도 그동안 20여 차례 특성화고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적 네트워크와 혁신적 경험을 토대로 시정과 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해 우리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조립 로봇용접센터를 개소하게 돼 감회가 크다"고 말했다.

광주전자공고 김용태 교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 학계, 교육계 등이 힘을 모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소된 자동차 조립 로봇용접교육센터는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실험실습실로 구축됐고, 추후 광주전자공고의 우수한 NCS기반교육과정을 전국적 우수사례로 홍보·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전남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활동 나눔의 날 개최

### 총 51팀 선정해 무대공연과 전시·영상으로 행사 진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활동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2020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나눔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관람객 없이 모든 일정을 전남교육 유튜브 채널(전남교육 TV)에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다.

도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팀 중 참가신청을 받아 총 51팀을 선정해 무대공연과 전시, 영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무대공연에는 뮤지컬·오케스트라·락 밴드 등 16팀이, 전시에는 IT·염색·목공예·역사 사진전 등 14

팀이 참여했다. 21팀은 활동 전반과 소감을 담은 영상을 소개한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참여 학생 11명과 장석웅 교육감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도중학교 박윤재 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면서 "특히, 8명의 팀원과 의견을 조율해서 팀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 협동심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전남 학생들이 도전목표를 향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역량과 자존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남



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남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협업 역량을 키우고 학생 스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역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해 시작해 2년째 운영되고 있다. 김정환기자

# 화순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 온·오프라인 개최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지난 21일 제5회 화순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화순교육참여위원 30명이 참여하여 화순교육 2021 계획안과 화순교육복합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품격있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화순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수립된 화순교육

2021 계획안에 대해서는 '5개의 중점과제'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와 '3개의 역점과제' ▲기초학력 책임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혁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1개의 특색교육'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화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보성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장 연수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이 9일부터 22일까지 신청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장 연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연수를 지양하는 한편,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연수를 진행하여 방역을 위한 안전성과 효과적인 내용 전달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보성남초등학교, 낙성초등학교, 복내중학교, 울어초등학교, 득량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건강한 소통을 위한 자기 이해 심리검사, 모의사례를 통해 경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폭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한층 현장감 있는 연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성=김명순기자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교사 김00은 "사례를 제시해주고 상황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해나가는 스토리 있는 구성이 흥미로웠다. 내가 사례 속에 들어가 직접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경험하는 느낌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보성=김명순기자

# 무안교육참여위원회, '무안교육 설명회' 개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21일 제7회 무안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즐거움 배움 함께 만들어가는 무안교육'을 기본방향으로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창의융합인 양성을 위한 '무

안교육 2021(안)'의견 수렴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무안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상규 무안교육참여위원회위원장은 "매

년 지역교육공동체가 참여한 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안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중간 조직이 활성화 되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